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공교육 '인성'에 주목하다

교육부 선정 '인성교육중심수업 우수사례' 보니

영상 시청 뒤 토론·책 읽어주는 학부모·작공과 눈 맞추기 등

광주·전남교육청 공청회 거쳐 '협력·활동 중심' 교육안 마련

교육부가 교실 수업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인성교육중심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진도실업고 강정 교사 등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고안한 'M·I·E(Media In Education) 토의·토론으로 지성과 감성을 살리는 도덕수업 만들기' 매뉴얼이 고등학교 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꼽혔다.

이해성 광주 금부초교 교사는 '3S배움으로 언뜻, 온뜻, 윤뜻 인성 기르기'라는 수업 방식으로 초등학교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최선희 광주 진제초교 교사는 초등학교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전남 죽림초교 강철웅 교사 등 12명이 고안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사례는 초등학교 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이 진행하는 인성 교육 중심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질까.

◇영상 활용해 지·감성 총만한 인성교육=진도실업고 학생들은 윤리 수업 시간마다 TV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영상 미디어에 진숙한 학생들인데다, 5분 가량의 짧은 영상과 음악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라 지루해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EBS TV 지식채널@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이라 내용이 알차다.

부모님 정찬하기 숙제를 통해 부모에 대해 알아가자는 게 주제인 '엄마가 웃었다' 프로그램을 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살아 계시실 때 꼭 해드릴 효도'에 대한 저마다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한 특별한 커리큘럼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진도실업고 강정 수석교사의 인성교육 중심 수업 사례다.

강 교사 뿐 아니다. 강 교사 등 전남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1명은 '전남지식채널-@연구회'라는 팀을 꾸리고 '지식채널@'을 활용한 인성교육 매뉴얼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사용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영된 '지식채널@' 750편을 분석, 도덕·윤리 과목을 비롯해 과학·사회·미술·국어·역사 등에서 활용 가능한 추천영상을 분류했다. 강 교사는 더 나아가 활용할 영상을 자신의 전공인 도덕·윤리 과목 단원별로 세분화해 나눴다. 여기에 해당 영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장·단점, 흥미로운 대안 등을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학생들이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읽고 나누며 표현하며 키우는 인성교육=이해성 금부초교 교사의 수업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협력하며 공부하는 즐거움과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교사는 이런 점을 감안, 관련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정해 연관된 '스토리텔링'을 짜고 짝 이야기 나눔·오감 표현 활동과 관련지어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면서 격주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아침 시간, 짝과 기분을 나누거나 눈을 맞추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성 프로그램을 수업 과정에 집어넣었다. 또 친구가 추천한 책을 읽거나 짝에게 책을 읽어줄 때 손가락 인형을 끼고 읽어주는 재미도 부여했다.

◇테마형 교육 매뉴얼에, 교사·학생 소통하는 인성교육도=최선희 진제초교 교사는 '몸 튼튼! 마음 튼튼! 인성 속속! 꿈 꿀름!'이라는 주제에 따라 월별 테마를 정해 각 과목과 연계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시킨 게 특징이다. 예를 들면 4·5월에는 '나'를, 5·6월에는 '가족', 7월엔 우리, 9·10월엔 '이

웃', 11·12월은 우리나라를 주제로 해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참여도를 높여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들이 73%를 넘었다. 강철웅 죽림초 교사 등 12명이 현장에서 선보인 '성장하는 교사, 변화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의 인성교육 수업 방식은 공교육 과정에 인성 관련 요소를 강화해야 하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나 효과적인 매뉴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젊은 교사들의 애로점을 엿볼 수 있다.

경력 10년 미만 교사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수업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참신한 수업 방식을 찾아가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 마련=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2016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발표

했다. 시교육청은 ▲인성 친화적인 학교 교육활동 변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지원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기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25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2016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를 갖고 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성교육 시행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교원 28%, 학부모 25%)는 설문조사와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미흡한 원인으로 성적·경쟁 위주 교육(35%) 등을 꼽은 점 등을 감안,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렇게나 멋졌나...추억이 깃든 캠퍼스의 사제



금상 홍새벽(의예과 2년) '눈 내리던 밤'



동상 조학(전자컴퓨터공학부 4년) '별이 빛나는 밤에'



장려상 이정혁(철학과 3년) '가을소풍'

전남대 사진 공모전 우수작

전남대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다. 전남대가 최근 선정한 '2015 4분기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은 우리가 익히 보왔던 전남대의 다른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

공모전에 출품된 293점 중 금상을 받은 홍새벽(의예과 2년)씨의 작품 '눈 내리던 밤'은 전남대의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눈 내리는 밤, 전남대 풍경을 환상적으로 포착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장면을 연출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늦은 밤, 불 켜진 전남대 캠퍼스를 담은 조학(전자컴퓨터공학부 4년)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동상 수상작으로 꼽혔다. 이의 최지훈(학과 3년)씨의 '가을 불길'와 이정혁(철학과 3년)씨의 '가을소풍'도 캠퍼스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대는 이들 작품 등 우수작 9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보성,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월산동,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은,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웅 6천5백만원포함)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